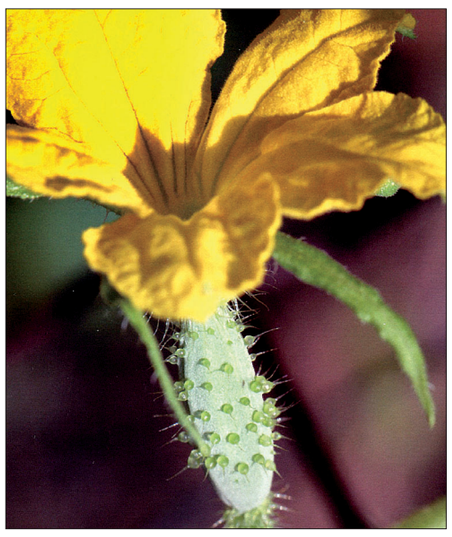
지혜의 보고 佛書



오이 암꽃을 자세히



마을 가까이 도라지밭



상추꽃 자세히

# 밥상 통해 인간 먹여살리는 밥꽃… 사람의 '목숨꽃'



밥꽃마중

장영란 · 김광화 지음 | 들녘 펴냄 | 1만 7천원

**부부가 농사지으며 만난 60여 곡식꽃**
**채소꽃을 글 · 사진으로 남긴 9년 기록**
**어려운 식물 용어 한글로 쉽게 정리해**

**밥꽃중 가장 대표적인 벼꽃, 꽃잎 無**
**식물은 꽃피기까지 큰 에너지 소모**

**식물 근본 아는 것 먹는꽃에 대한 예의**
**화려하진 않지만 생명이 한끼 만들어**

벼나 콩에도 꽃이 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체 벼나 콩 어디서 꽃이 피었다 진단 말인가? 논밭서 평생을 보낸 농부들조차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치기 쉬운 곡식꽃, 채소꽃. 그도 그럴 것이 일단 작고 볼품없다. 형형색색 화려한 꽃잎과 탐스러운 이파리에 둘러싸인 꽃들에 비해 이 책서 보여주는 꽃들은 '이게 꽃이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이 책은 장영란, 김광화 부부가 농사를 지으며 만난 60가지 곡식꽃, 채소꽃을 글과 사진으로 남긴 9년간의 기록이다.

저자는 우리 밥상에 매일같이 올라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이 꽃들을 '밥꽃'이라 이름 붙이고, 사람의 '목숨꽃'이라 여겼다. 이들의 지극하고 유별난 밥꽃 사랑은 단순히 꽃을 즐기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 밥꽃이 어떤 과정을 통해 사랑을 하고 꽃을 피우는지, 내가 키우는 밥꽃(농작물)은 언제 어디서 들어왔는지, 이들의 가계(家系)는 어떻게 이어져왔는지 등 공부하는 과정이 뒤따랐다. 또한 한자와 우리말이 뒤섞여 어려운 식물 용어를 되도록 한글말로 (한자가 더 알아듣기 쉬울 때는 한자로) 정리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저자 김광화는 꽃을 피우는 그 짧은 시간을 보기 위해 새벽마다 카메라를 챙겨 들고 어둠 속으로 나갔다. 쌀 한 톨, 마늘 한 쪽 그리고 옥수수 한 알에 담긴 밥꽃의 생명을 '마중'하러 나갔던 길. 그 여정을 통해 만난 것은 그저 밥꽃 하나가 아니라 사랑과 생명 그리고 자연에 대한 귀중한 가치였다.

꽃잎, 꽃받침, 수술 그리고 암술을 갖춘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꽃'의 구조다. 하지만 밥꽃의 가장 대표인 벼꽃에는 그 흔한 꽃잎도 없다. 그냥 껍질이 벌어졌다 닫힌다. 그래서 벼꽃은 '피는' 게 아니라 '이삭이 패는' 것이다. 벼꽃이 초라한 데는 나름 중요한 이유가 있다. 식물은 꽃을 피우기까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래서 벼는 제대로 된 '꽃'을 피우지 않고 '씨앗'을 남기는 것이다. 이렇게 벼꽃 한 송이가 피었다 져야 겨우 한 쌀 톨이 된다. 그것도 날씨가 나쁘거나 영양상태가 안 좋거나 벌레가 못살게 굴면 허탕이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쌀 한 톨에 벼꽃 한 송이의 '드라마'가 숨겨져 있다.

요즘 꽃이나 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우리를 먹여 살리는 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사실 열매를 맺는 모든 작물은 꽃을 피운다. 식물의 생장기를 '한살이'라고 하는데, 자기 몸이 자라는 영양생장기를 거쳐 꽃 피고 씨 맺는 생식생장기로 마감한다. 그중에서도 벼나 콩은 씨앗을 먹기 위해 기르니 영양생장기만이 아니라 생식생장기까지 '한살이'를 마쳐야 사람이 거두어 먹는다. 하지만 배추, 무 등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작물은 수확한 이후 밭을 갈아버린다. 애초에 뿌린 씨앗도 종자회사서 육종한 씨앗이니 다시 받아봐야 소용이 없다. 어차피 씨를 다시 사다가 심어야 한다. 저자는 이런 구조가 반복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먹는 것이 자연에서 왔다는 사실조차 잊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밥꽃에 대한 작업은 이러한 안타까움에서 시작되었다.

20여 년간 맛본 수확의 기쁨만큼이나 뭉클하고 알싸한 식물의 세계. 작물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한살이'는 우리 인생의 모든 페이지와 같다. 인생의 중반을 훌쩍 넘긴 이들 부부가 논 한복판에서 만난 작은 밥꽃 한 송이에 감동하게 되는 것은 알싸한 우리네 인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저 유명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밥꽃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농사지었던 경험이나 눈으로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식물학 기초 공부가 필요하다는 걸 절감한 부부. 이 책의 말미에 정리한 '이론공부'만도 30페이지가 훌쩍 넘는다. 식물학 전공자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 법한데, 오히려 평생 해온 농사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다고 한다. '곡식이든 채소든, 하나를 제대로 알려면 빠지지 않는 게 있다. 분류계통에서 무슨 '과(Family)'인지, 그다음에는 원산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는지 등을 알아보는 것'이다. 물론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듯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렇게 근원을 더듬다 보면 뜻밖의 것들을 알게 된다. 이를테면 고추, 담배, 호박은 우리 민족과 떼기 어려울 만큼 어우러져 꽤 오래된 작물이라 여겼지만, 그리 오래지 않은 임진왜란 때 들어왔다. 수박은 저 멀고도 먼 남아프리카가 원산인데 이미 고려시대에 들어왔고, 옥수수는 아메리카서, 수수는 아프리카서 들어왔다고 한다. 곡식의 고향을 알게 되면 그 곡식을 어떻게 가꾸면 좋을지 감이 잡힌다. 물이 부족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물을 주어야 하는지 등 작물에 새겨진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농사에서 가장 참고가 되는 분류체계 역시 '과'다. 사람과 짐승이 먹고 사는 식량이 되는 벼, 보리, 밀, 수수, 옥수수 등은 모두 벼과 집안 식구들인데, 벼과가 바로 외떡잎식물이다. 외떡잎식물을 떡잎 한 장인 식물로만 알고 있던 상식은 이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우리를 먹여 살리는, 없어서는 안 될 꽃이 바로 외떡잎식물군의 벼과 꽃들인 것. 여기서 나아가 외 · 쌍떡잎식물을 묶어 '속씨식물'이라고 한다. 은행나무, 잣나무 등의 '겉씨식물'을 제외하면 우리가 먹는 나머지 재배식물은 다 속씨식물에 속한다.

이렇듯 '이론공부'라 이름 붙여진 내용들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우리 먹거리의 근본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비유담으로 설해진 68가지 부처님 가르침



법구비유경

이동형역 | 운주사 펴냄 | 1만 8천원

〈법구경〉은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읽히는 경전임에도 불구하고, 게송으로서의 한계 때문에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다수 있다. 법구비유경은 각 게송이 설해진 배경과 인연 이야기들을 통해 게송들이 가지는 의미를 쉽고 명료하게 보여준다.

불교경전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가장 많이 읽혀지는 경전은 무엇일까? 단연코 〈법구경〉은 그 수위를 다툴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과 수행자의 자세, 마음가짐들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지켜야 할 도리와 교훈 등이 쉽게, 짧은 게송(시)의 형태로 돼 있어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권 모두에서 사랑받을 뿐 아니라 비 불교인들에게도 사랑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구경〉은 게송의 형태서 오는 압축성 때문에 그 뜻이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들이 다수 있다. 〈법구비유경〉은 이 문제를 해결해준다.

〈법구비유경〉은 〈법구경〉을 대본으로 해서 이루어진 경으로, 법구(法句)의 게송 하나하나가 어떠한 본말(本末)의 인연에 의해서 설해지게 되었는가를 밝혀주는 여러 비유담이 실려 있는 경전이다. 즉 각각의 게송들이 설해진 배경, 인연 이야기들을 수록해 그 게송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료히 드러내준다. 그럼으로써 독자들은 보다 쉽게 게송의 의미를 이해하고, 보다 감동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며, 그 여운 또한 길게 남을 것이다. 〈법구비유경〉은 총 42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비유담으로 설해진 이야기는 68가지이다. 비록 이 비유담들은 법구의 게송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지만, 각각의 이야기들은 그 자체로도 충분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이야기만으로도 부처님 가르침을 충분히 보여주기 때문이고, 비유문학의 백미로 꼽히며 문학적 가치 또한 인정받기 때문이다.

이 책의 특징 중 하나는 각 이야기의 끝에 역자가 임의로 짤막한 글을 첨부한 것이다. 주로 본문의 이해를 돕는 내용이나 본문과 관련지어 역자의 생각을 서술했는데, 후자의 경우 역자의 생각을 전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에게 인연담의 현재적 의미를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에 목적이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인연담의 경우 한문 원문을 수록하지 않았으나, 게송은 한문 원문을 수록한 점이다. 게송은 그 특성상 압축되어 표현되므로 번역에 어려움이 따르고, 따라서 자칫 본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문을 함께 수록하여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김주일 기자


피가 돌고 맥박이 뛰는 살아 있는 깨달음, "아리랑" 속에 그 길이 있습니다



깨침 아리랑

* 대현 지음 / 264쪽 / 값 15,000원

"나"를 떠나서는 십리도 못 가 발병 나리니
여보게들, 제발 제발
이 "나"를 속살 깊이 연구하여 보세나.
길은 안으로 안으로 놓여져 있다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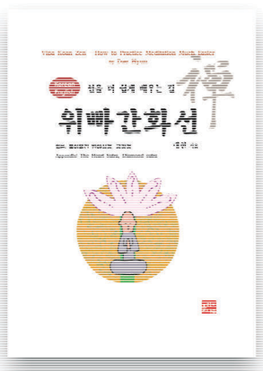
깨침 아리랑

우리 민족은 지구촌 어느 곳에 둥지를 틀고 살아가든지 아리랑 노래만 나오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고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리랑에는 우리 민족만의 고유독특한 한(恨)이 서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아리랑 가사 속에 스며 있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 민족의 한과 정서가 깃든 아리랑의 유래를 알아보는 일은, 한맺힌 아리랑 노래를 "깨침의 노래"로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자 대현 스님

1968년 백양사로 출가, 강진 백련사에서 南山正日 선사를 은사로 득도하셨다. 1975년 인천 용화사 법보선원에서 안거 후 제방선원에서 50안거를 성만하신 스님은, 간화선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지름길인 것이 분명하지만, 깎아지른 바위산을 단박에 오르는 것과도 같아서 상근기에 적합한 수행법이라는 생각을 품고 계시던 중 '위빠사나'를 만난 이후 이를 간화선에 접목, 수행의 바르고 빠른 길로서 "위빠간화선"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지금은 지리산 정각사 죽림선원에서 정진중이시다. 저서로는 『선승의 길』, 『선을 배우는 길』, 『위빠간화선』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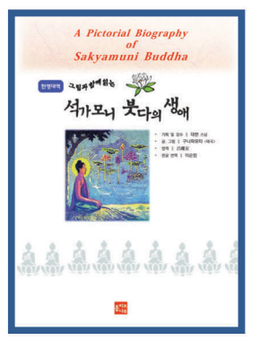
위빠간화선

* 대현 지음 / 160쪽 / 값 12,000원

위빠간화선

위빠사나와 간화선을 하나로 통합한 "선수행의 길라잡이"

늘 깨어 있어 알아차리면서 "이 뭣고?" 하고 화두를 챙기는 것이, 위빠사나 수행과 간화선 수행의 장점을 잘 살린 "위빠간화선"이다. 한 공간에 어둠과 빛이 공존하지 못하듯, 처음 위빠간화선을 시작하는 사람은 들떠 요동치는 업식을 잠재우는 시간이 길지만, 수행을 열심히 하다보면 위빠사나의 알아차림이 짧아지고 화두 드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다보면 화두 의단이 독로하여 앉고 서고 가고 오고 말할 때 한결같게 된다.



한영대역판

그림과 함께 읽는

석가모니 붓다의 생애

* 기획 및 감수 ‖ 대현 스님
* 240쪽 / 컬러 / 값 12,000원

가장 행복한 나눔—
"부처님의 생애"를 선물하는 일입니다

천지를 운행하는 거대한 섭리를 향해 던진 큰 물음표가 있었기에, 그리고 해답을 얻고야 말겠다는 구도에의 열정이 있었기에 부처님은 세상의 그 누구도 얻지 못한 큰 깨달음으로 세상에 빛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 안에서 진정한 쉴 곳을 찾았고, 구원을 얻었으며, 삶과 자연과 자기 자신의 가치에 눈을 떴습니다. 부처님의 생애가 주는 감동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진정으로 먹어야 할 영적인 양식이 아닐까요! —대현 스님 ("선승의 길"의 저자)

불교의 근본 핵심이자 바탕이 되는 부처님의 생애를 널리 알리는 일은 곧 진리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산청 정각사에서는 〈석가모니 붓다의 생애〉를 널리 알리고자 사찰 및 개인에게 책값의 50%에 해당하는 법보시를 지원합니다.

문의 010-9772-4588, 055) 972-1109

올리브나무 전화 070-8274-1226, 010-7755-2261 팩스 031-629-6983 이메일 yoyoyi91@naver.com